

## 멕시코 경제 동향('09.5월)

### 1. 멕시코 경제 동향

#### □ 최근 중앙은행 통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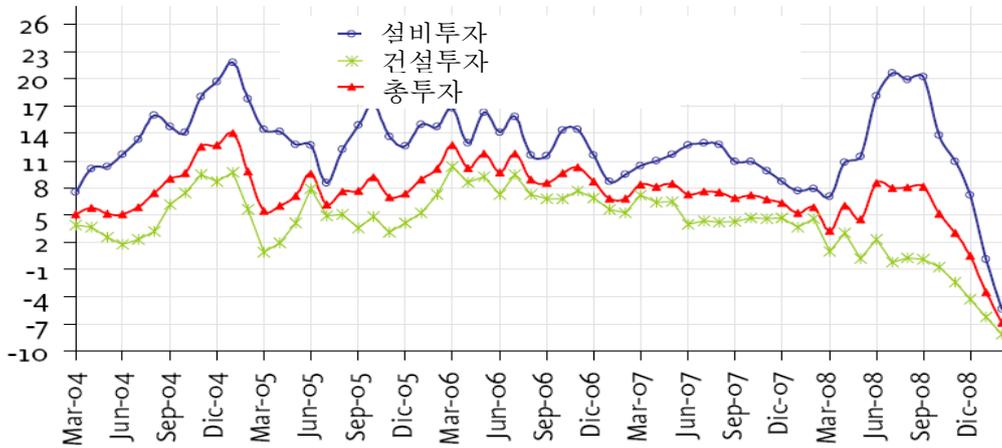
- 지난주 멕시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발표를 통해 선진국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일부 개도국들도 회복세를 보이는 등 국제경제 위축이 완화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상황이 제한적이지만(특히, 일부 개도국) 안정을 찾고 있다고 언급
- 동 은행은 멕시코의 경우 금년 들어 경제활동 위축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4월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가 향후 3~4개월 간 더욱 심화될 것이나,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아 갈 것으로 전망
- 한편, 동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 멕시코 중앙은행은 생산 위축 심화, 환율 안정세 지속 등으로 향후 수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상승폭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
-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5월 15일 기준금리를 75bp 전격 인하한 5.25%로 결정했다고 발표

#### □ 국내총고정투자

- 금년 2월 중 멕시코 총고정투자는 전년 동월대비 12.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설비투자가 15% 감소(해외구매 14.8%, 국내조달 15.4% 각각 감소)했으며, 건설투자도 10.3%가 감소

- 참고로 1월부터 2월까지 누적투자 증가율은 -10.1% 기록

### 멕시코 국내 고정투자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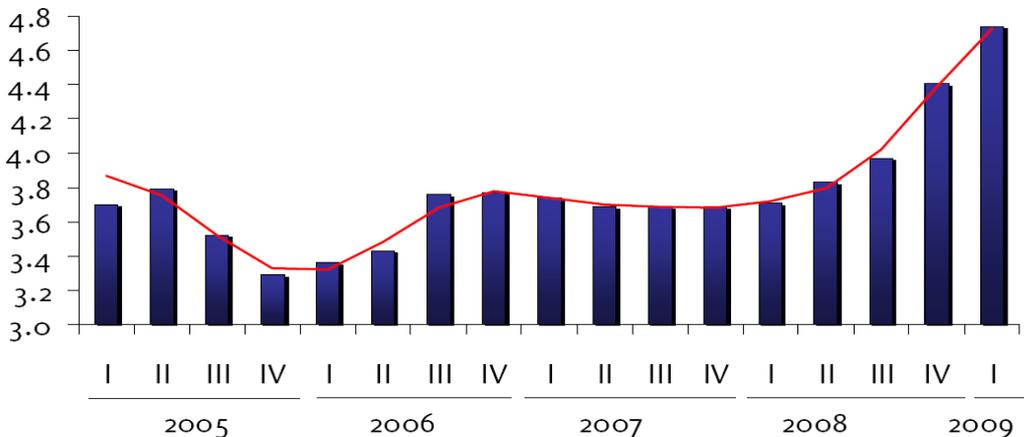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통계청

### □ 실업률

-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말 현재 14세 이상 경제활동가능 인구(45.2백만 명)중 고용률은 94.9%를 기록. 이에 따라 실업률은 5.1%에 이르며, 이는 전년동기(3.9%)대비 30%, 전분기대비로는 0.33%p 증가
- 참고로 금년 4월말 현재 IMSS(국가의료보험공단)에 등록된 도시근로자 수는 13,849,815명(임시직 포함)으로 전년말 대비 31,062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08년 4월말 이후로는 484,852개의 자리가 감소하는 등 실업률 증가세 지속

### 연도별 분기별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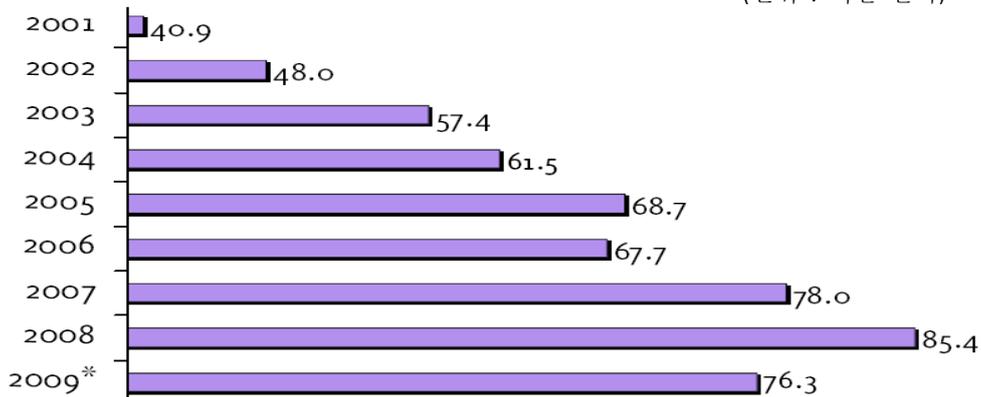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통계청

## □ 외환보유고

- 멕시코 외환보유고는 정부의 환율 방어를 위한 달러화 매입 지속으로 지난 연말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참고로 5월 8일자 현재 동국의 외환보유고는 전주대비 5.4억 달러가 감소한 76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말 대비로는 91.3억 달러가 감소

### 연도별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9년은 5월 8일 현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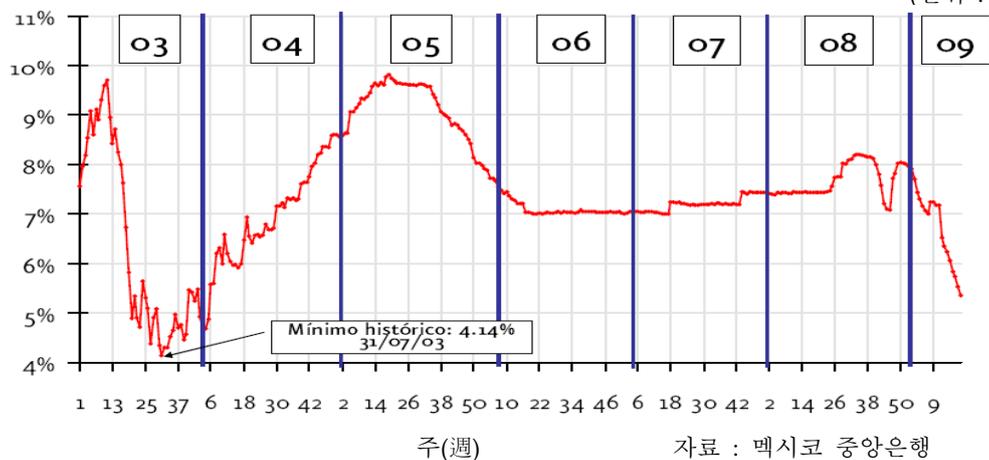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 금 리

- 5월 12일자 멕시코의 28일물, 91일물, 175일물 기준금리(CETES)는 전주 대비 각각 18bp, 5bp, 5bp 하락한 5.36%, 5.37% 및 5.37% 기록
- 한편, 3년 만기 채권 시세는 14bp 상승한 6.18%에 거래

### 연도별 주별 기준금리 동향 (CETES 28일물 기준)

(단위 : %)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 주식시장

- 멕시코 IPyC지수는 전주대비 3.09% 하락한 23,341.72를 기록, 연초대비 폐소화 기준으로는 4.30%, 달러화 기준으로는 9.2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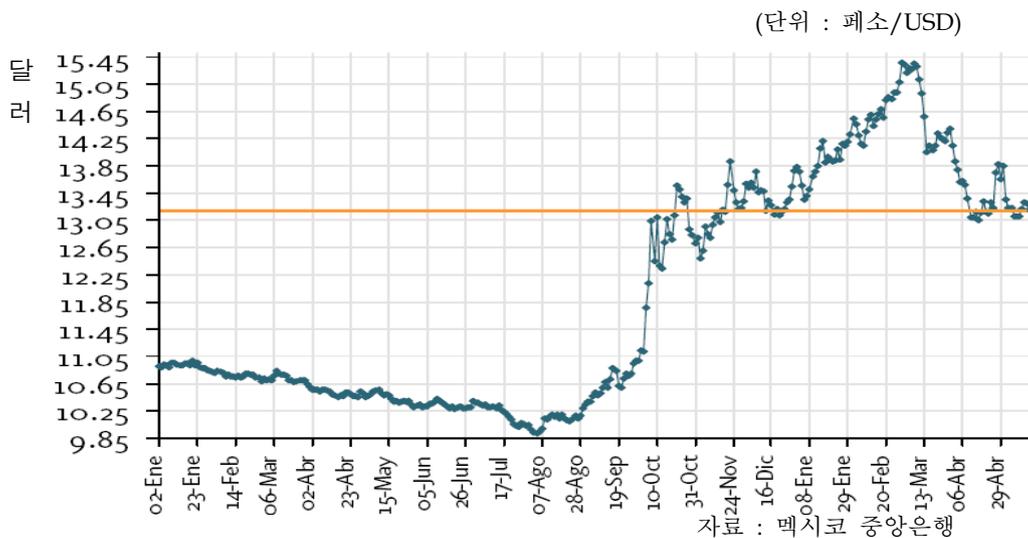
### 멕시코 주식시장 동향



## □ 환 율

- 5월 15일 마감 폐소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3.2058페소로 전주대비 9.91센타보 하락했으며, 금년 현재까지의 누적평균 환율은 연초대비 62.67센타보 하락한 14.0443 페소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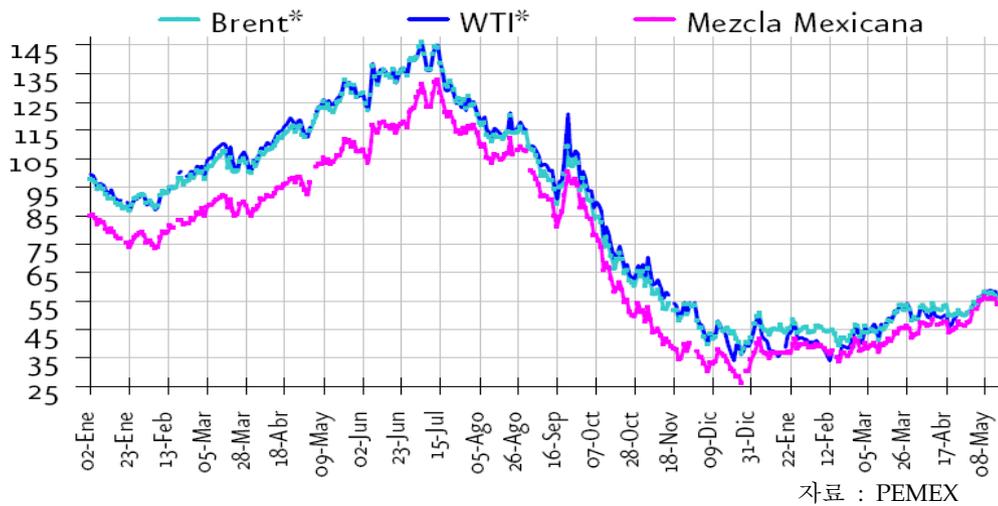
### 폐소화 대미 달러 환율 동향(2007~2009)



## □ 원유수출가격

- 5월 8일자 멕시코산 원유의 수출가격은 배럴당 53.87달러로 전주대비 4.45%가 하락, 연초대비로는 57.42% 상승했으며, 연중 평균가격은 42.52 달러
- 한편, 서부텍사스중질유 및 북해산브렌트유도 각각 3.91% 및 3.72% 하락한 55.34달러 및 55.98달러에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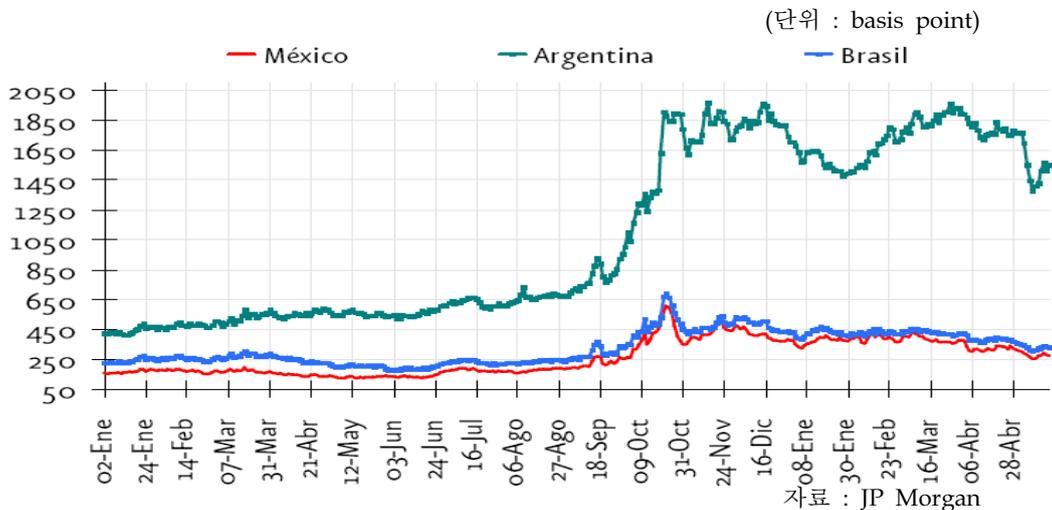
**원유수출가격동향(배럴당 가격)**



## □ 국가위험도

- 5월 15일자 현재 멕시코에 대한 JP Morgan 개도국 위험지수(EMBI+)는 전주 대비 19p 상승한 274p 기록, 참고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330p 및 1,550p로 전주대비 141p 및 20p 상승

**멕시코 국가위험도지수(EMBI+)**



## 2. 기관별 경제관련 전망

### □ Bancomer은행, 중앙은행 50bp 추가 금리 인하 예상

- Bancomer은행은 멕시코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멕시코 중앙은행이 다음 금리위원회 개최시 추가적으로 50bp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연말 예상기준금리 4.5% 전망)
- 동 은행은 최근 정부의 통화정책이 환율 변화의 연관성이 있다고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고, 연말 인플레이션 가속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지는 충분하다고 언급

### □ Santander은행, 멕시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5.0%로 하향 조정

- Santander은행은 올해 멕시코 경제성장률 전망을 금년 4월말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경기 침체 심화로 당초 -4.2%에서 -5.0%로 하향 조정
- 동 은행은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가 유흥오락산업,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분기별로는 동국의 GDP가 1/4분기 -7.65%, 2/4분기 -8.0%로 크게 감소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2.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Banamex, 올해 국내고정투자 감소율 8% 전망

- 멕시코 Banamex은행은 금년 2월 국내고정투자 결과를 토대로 향후 내수, 생산활동 등을 감안할 때 투자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대비 올해 연말 총고정투자는 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IXE은행, 신종 인플루엔자 충격 완화

- IXE은행은 최근 정부의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으로 피해규모가 GDP의 0.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동 은행은 정부가 피해기업에 대한 110억 페소 규모의 추가 여신 제공 등을 포함 총 284억 페소를 지원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기업들은 유동성 공급에 따른 자금부담과 고용인력 감축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

< 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 >